

수 없다고 본다.

그러나 앞으로의 더욱 큰 해결과제가 산적해 있음도 지적하지 않을 수 없다. 협회가 5십여만 한우농가와 2만6천여 낙농가의 권익대변단체라고 자처하면서도 재정적인 운영의 어려움을 면치 못하고 있음은 수치가 아닐 수 없다. 권익보호 하지는 것은 스스로 참여하면서 활동하는 가운데 성취되는 결과이다. 또 기본적 책임과 의무를 다할때 얻어지는 산물임이 분명하다. 그럼에도 아직도 회비납부를 독려해야 하고, 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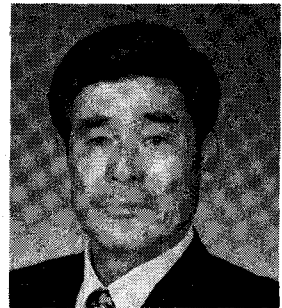
여를 부르짖어야 하는 현실이라면 농가들의 반성과 자발적인 노력이 필수적이라고 본다.

낙농육우인의 권익은 우리 스스로 참여하고 활동하는 가운데서 이루어질 수 있음을 간과해서는 안될 것이다. 많은 과제를 목전에 둔채 임원직을 만기하는 것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다만 단합하여 힘을 형성하지 못하면 가능성은 희박하지만 단결력을 발휘하면 반드시 성취한다는 교훈을 다시한번 음미코자 한다.



낙농산업의 경쟁력 강화를 위해 매진하는 해가 되기를



이 상 섭
본회이사. 강원도지회장

밝아오는 올해년을 맞이하여 전국의 낙농가족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해 동안 우리는 새로운 경제체제의 출범과 강대국의 자국이익에 부합되는 각종 라운드의 선언속에서도 국민의 건강증진과 낙농산업 경쟁력을 위하여 최선의 노력을 경주한 한해였다.

금년부터 시작되는 WTO 무역체제는 열악한 우리의 낙농산업에는 커다란 시련을 가져다 줄 것이다. 지금까지는 각종 산업에 대한 국가의 정책적인 각종법이 제정되어 시행되고 있었으나 낙농산업 발전을 위한 진흥법은 제정되지도 않았고, 그렇다고 지금 정부의 경제정책과 결과만을 탓할 수도 없는 실정이다.

우루과이라운드 타결이후 일부 농업 종사자들은 농업을 포기하고 각자 새로운 삶을 찾아 고향을 등지는

이농현상이 전국 농촌에서 일어나고 있는 것이 현실이다.

그러나 일부 산업체에서는 새로운 경제체제에 대처하기 위하여 품질과 기술개발을 통한 세계 제1의 제품 생산만이 유일한 생존권 확보라고 인식하고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불철주야 연구하고 있다.

우리가 상심하고 우리의 낙농산업을 포기할 때 세계는 이를 좋은 기회로 포착하여 우리의 생존권을 위협할것은 뻔한 사실이다.

대통령께서는 지난해 11월 APEC회의 참석 후 발표한 세계화 정책은 급변하는 세계경제질서 속에 우리의 생존권을 위해 모든 제도과 의식의 구각을 벗고 세계화를 겨냥할 때 보장될 수 있다는 전제하에 이루어졌다고 볼 때 우리 소사육농가도 세계화를 위한 경

우리 낙농인들의 자세를 보면 자기이익과 무관한 일에는 남의 일인양 치부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우리의 권익단체인 낙우회, 도지회 그리고 협회가 있다. 우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회원수가 증가하고 회원님들의 의견이 협회에 전달될 때 우리 협회는 활기를 찾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쟁력확보에 매진해야 할 것이다.

존경하는 전국의 낙농가족 여러분 우리 낙농산업의 경쟁력강화를 위하여 제안하고자 한다.

품질좋은 우유를 생산하는 길이다. 위생적이고 질

좋은 우유생산 만이 경쟁에서 살아남을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지금까지의 구태의연한 우유생산 방식에서 탈피하고 지속적인 연구활동을 통하여 새로운 기술을 축적해야 하겠다.

다음은 협회의 활성화이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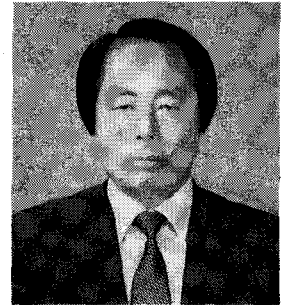
그동안 우리 낙농인들의 자세를 보면 자기이익과 무관한 일에는 남의 일인양 치부하고 마는 일이 비일비재 했다.

우리의 권익단체인 낙우회, 도지회 그리고 협회가 있다. 우리의 애로사항을 청취하고 이를 해결하기 위하여는 회원들의 적극적인 협조가 요구된다. 아직도 협회에 가입하지 않은 비회원이 전국적으로 상당수가 있다고 한다. 예를들어 삼형제가 낙농을 할 경우 그중 한 사람만 회원으로 가입하면 모든 것이 일사천리 진행되리라 생각하는데 이것은 즉시 시정되어야 할 문제이다.

회원수가 증가하고 회원님들의 의견이 협회에 전달될 때 우리협회는 활기를 찾아 회원들의 권익을 위해 최선의 노력을 기울일 것이다.



협회의 힘이, 곧 내가 살 수 있는 힘이다



박 재 호
본회이사. 해울목장

진부한 말로 치부될지 모르지만 맹자(孟子)에 이런 말이 있다. 「세상에 도가 살아있을 때는 적은 덕은 큰 덕에 의해 부림을 받고, 큰 어짐이 작은 어짐을 다스리고, 도가 없으면 작은것은 큰 것에 약한것은 강한

것에 의해 부림을 받는다(天下有道, 小德力大德, 小賢役大賢, 天下無道, 小役大, 弱役強)고 하면서 순천자는 생존하고 하늘뜻을 어기는자는 망한다(順天者存, 逆天者已)고 결론짓고 있다.」